

동계(桐溪) 정온(鄭蘊) 서원배향(書院配享)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양진건
(제주대학)

〈요 약〉

제주도에서 동계 정온이 주력했던 자기교육활동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후일 굴림서원 배향으로 나타난다. 정온은 척화파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 굴림서원에 배향이 되면서 경의지학이라는 남명학파의 유서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교육사상을 제주도에 계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원 배향은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후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는 교육적 동기를 갖고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제주도 굴림서원 배향을 통해 정온은 200여 년간 제주도 교육의 큰 스승(經史大師)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제주도에서도 남명학파의 유서라는 차원에서 “경”과 “의”에 투철하고,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교육사상을 계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주제어: 동계 정온, 굴림서원, 제주오현, 배향, 남명학파

I. 서론

정온(鄭蘊)(1569~1641)의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동계(桐溪)다. 정온은 어릴 적에 성팽년(成彭年)에게 배웠고¹⁾ 장성해서는 잘 알려진 대로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에게 나아가 사제의 연을 맺었고, 동시에 남명(南冥) 조식(曹植) 문하에도 입문하여 남명의 사상을 체득하게 된다.²⁾

정온이 24세이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객재우, 정인홍, 김면을 비롯한 남명 문

* 본 연구는 2009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진흥 지원사업에 의한 것임

1) 鄭蘊, 『桐溪續集』 권2, 「成石谷傳」

2) 정온이 정인홍의 문인이 된 것은 31세 때인 1599년(선조 32)이었다. 당시 정인홍은 이미 산림(山林)으로서 명망을 지니고 있었거니와 그 또한 정온을 정중하게 대접했다고 한다(鄭蘊, 『桐溪集』 「年譜」, 萬曆 28年6月: “初 鄭仁弘受業南冥之門 負山林重望…… 先生往來其門 仁弘亦敬重焉”).

하의 학인들이 의병을 일으키자 정은 역시 부친 정유명과 함께 의병장 김면의 막하에서 활동을 한다. 임진왜란 이후 전쟁 때문에 무너진 강상질서(綱常秩序)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의(義)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차 1608년 2월,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하게 된다. 이로써 정인홍, 이이첨 등은 ‘죄인’의 처지에서 ‘공신’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대북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은은 ‘공신’이자 ‘대북파의 실세’가 된 스승 정인홍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밀려드는 것을 우려하고, 동시에 정인홍을 통해 봉당의 폐단이 제거되기를 바랐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정은 역시 본격적으로 출사하게 되어³⁾ 1610년(광해군 2)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說書)와 사서 그리고 정언 등을 역임하다가 1614년 부사직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이 부당함을 상소했다가 제주도 대정현에서 10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덕번록(德辨錄)」과 「망북두시(望北斗詩)」, 「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우국(愛君憂國)의 뜻을 토로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석방, 헌납에 등용되었다. 이어 사간과 이조참의, 대사간 그리고 경상도관찰사와 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김상헌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이루어지자 사직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5년 만에 죽는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광주의 현절사(顯節祠), 제주도의 귤림서원(橘林書院)과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동계집(桐溪集)』이 있다.

정은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영창대군 문제였다. 그는 영창대군이 살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살해되자 광해군6년(1614) 2월, 상소를 통해 이 사태를 통렬히 비판하고, 가해자인 전 강화부사 정항의 목을 베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이 상소에서 정은은 광해군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인목대비에게 효도를 다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고, 간사한 자들을 물리치라고 촉구했다.⁴⁾

보통 갑인봉사(甲寅封事)라고 불리는 정은의 이 상소는 조정 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광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파들은 정은의 상소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한다. 그들은 ‘영창대군은 난신적자(亂臣賊子)이므로 누구나 죽일 수 있다. 정은은 정인홍에게 배웠지만 정인홍의 도의는 배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은을 유배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반적인 조정의 분위기가 정은을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돌아가는 와중에 영의정

3) 정은 역시 정인홍과 마찬가지로 광해군 즉위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엄두에 둔다면 그의 출사는 극히 당연하다. 실제 그는 1612년 9월, 유영경을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광해군 즉위에 공을 세운 훈신(勳臣)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鄭蘊, 『桐溪集』 「年譜」, 萬曆 40年 10月).

4) 《光海君日記》 卷75, 6年 2月 甲辰

이원의 등의 비호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 1614년 8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⁵⁾ 인조반정(仁祖反正)까지 10여 년간을 지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동계 정온의 10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의 결과 남겨진 서원배향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년간의 교육적 자취는 물론 정온의 제주도 서원배향이 궁극적으로 제주교육사에 미친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한국교육사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 동계 정온의 교육사상

동계 정온이 정인홍의 문인이 됨으로써 남명(南冥)의 사상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31세 이후였다. 남명의 학문은 일반적으로 경의지학(敬義之學)으로 통칭된다. 남명에게 있어 “경”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고 “의”는 처사접물(處事接物) 시에 일을 반듯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잣대이다.

“경”은 자신과 관계되는 일에 쓰이는 용어이고 “의”는 남과 관계되는 일에 쓰이는 용어이다. 그러나 “경”에 의한 마음의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신명이 신명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경”은 “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는 “경”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그 존립 근거가 희박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의”가 “경”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내적 수양과 관련된 “경”이 중요한 만큼 “경”이 전제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의 “의”도 “경”만큼 중요한 것이다.

남명의 경의지학은 스승 정인홍을 거쳐 정온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온의 행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문에 무너진 강상질서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의”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려는 노력이었다. 이 같은 정온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대개 “신(身)”을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려는 것을 붙들어 살리는 것이다. “의”를 돕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없어지려는 것을 붙들어 존재토록 하는 것이다. “신”을 돕는 것은 그 돕는 것이 적고 공효(功效)가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지만, “의”를 돕는 것은 그 돕는 것이 크고 그 공효가 만세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의”를 돕는 것은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장차 천하 국가를 돕는 것이다. 그런즉 태공이 백이를 도운 것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그 “신”을 도왔다고 말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 “의”를 도왔다고 생각한다.⁶⁾

5) 《光海君日記》卷11, 6年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그런가하면 인조반정 후 정온은 언관 활동을 통해 먼저 국왕 인조를 올바르게 보도(輔導)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인조에게 “성학”을 닦을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요체로서 “경”을 강조했다. 정온은 인조반정 직후의 경연에서 인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무릇 제사는 “경”을 위주로 합니다. 이른바 “경”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비단 제사를 지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려하거나, 제왕의 학문으로부터 유사(儒士)에 이르기까지 “경”의 공부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불경하면 마음의 주체가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정령(政令)을 시행할 때 스스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뿌리 없는 나무의 가지나 이파리가 무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경”으로써 안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⁷⁾

위에서 보이듯이 정온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실천을 통해 남명의 경의지학을 계승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온의 이러한 실천적 태도는 1627년과 1636년의 호란을 맞이했을 때 유감없이 발휘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다른 척화파 신료들이 대개 ‘오랑캐와 화친해서는 안 된다’는 수준의 원칙론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적과 결전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실제적인 척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점이다. 요컨대 정온은 단순히 ‘관념적인 척화파’가 아니라 ‘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실천적인 척화파’였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명으로부터 이어져온 경의지학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과 “의”에 투철하고,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사상적 전통이 곧 정온의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동계 정온의 제주도 서원배향

1. 위리안치생활

정온은 1614년 유배형에 처해진 이후 1623년 인조반정 직후 풀려날 때까지 제주도 대

6) 鄭蘊, 『桐溪集』卷2, 「太公扶伯夷論」, “蓋扶身者 扶其人之死而使之生者也 扶義者 扶其心之滅而使之存者也 身之扶 其扶也小而其效止於一人 義之扶 其扶也大而其效垂於萬世 扶其義則亦可以扶其人 而將有以扶天下國家也 然則太公之扶伯夷 人皆曰扶其身 而吾必以爲扶其義也”

7) 鄭蘊, 『桐溪集』 「年譜」, 天啓 3년, “啓曰 凡祭以敬爲主 所謂敬者 非獨祭時爲然 實聖學成始成終之功 自帝王之學 至於儒士 敬之工夫 皆不可無也 不敬則此心無主 施諸政令之間 無以自立 比如無根之木枝葉不能暢茂 須當敬以直內……”

정현 동문 안에 위리안치된 채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정은의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대정현 동문 안에 위리된 내력을 적은 기문(大靜縣東門內圍籬記)』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정은은 자신의 유배지 제주도 대정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한라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1백여 리를 뻗어가서 둘로 나뉘어 동서의 양 산록이 되었는데, 동쪽에는 산방악과 파고미악이 있고, 서쪽에는 가시악과 모슬포악이 있다. 곧장 남쪽으로 가서 바다에 이르면 송악산, 가파도, 마라도가 늘어서 있는데 모두 우뚝 솟아 매우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파고가 용의 형상이라면 가시는 호랑이 형상이다. 황모가 들에 가득하고 바다에서 10리쯤 떨어진 거리에 외딴 섬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대정현이다.⁸⁾

정은이 유배되었던 제주도 대정현은 조선왕조가 절도유배지(絶島流配地)로 지정한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다. 1612년(광해군4)의 기사를 보면 제주, 정의, 대정, 진도, 거제, 남해가 절도유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외에는 절도유배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⁹⁾ 그런가하면 1787년(정조11) 『전률통보(典律通補)』에서는 절도유배지 대상으로 광해군조의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대정현만 꼽고¹⁰⁾있을 만큼 대정현이야말로 절도유배의 대표지역이었다.

정은의 제주도 대정현 유배형은 제주도라는 점에서 3천리 형이자 또 섬이라는 점에서 절도안치(絶島安置) 형이며 그리고 가시울타리 안에 감금되었다는 점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 형이다.

절도안치는 중죄인을 먼 섬에 유배시키는 가장 가혹한 형이기 때문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원전으로 하여 만든 새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섬을 유배지로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흑산도와 같은 극악한 지역에는 군왕의 특별한 교지가 있어야 하며, 특히 제주3읍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가 아니면 정배하지 말 것이며 또 제주3읍의 죄인들은 제주도 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¹¹⁾ 절도안치를 조심스럽게 취급했다.

위리안치란 죄인이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유배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원래 유배인이 원하면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의 동반이 가능

8) 鄭蘊, 『桐溪集』卷2, 「大靜縣東門內圍籬記 萬曆甲寅秋八月日」, “漢挈一支 南走百餘里 分爲東西麓 東者曰山方岳也 破古未岳也 西者曰加時岳也 毛瑟浦岳也 直南而至海 列爲松岳山 加波島 磨羅島 皆穹窿突兀 有奇狀甚 破古以爲龍 加時以爲虎 黃茅滿野 去海十里 有孤城周遭者 乃大靜縣也”

9) 《光海君日記》卷58, 4年 10月 壬申

10) 『典律通補』, 推斷條

11) 『典律通補』, 推斷條

했지만¹²⁾ 위리안치만은 그것이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제주도 유배형은 절도안치와 위리안치가 복합된 형태였다.

정온은 제주도 대정현의 위리안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북쪽, 동쪽, 남쪽 3면은 모두 처마에 닿아서 하늘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서쪽에서만 볼 수 있으니, 마치 우물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울타리 안에 동쪽과 서쪽은 항상 한 자 남짓 여유가 있고 남쪽과 북쪽은 3분의 2가 되는데 남쪽을 향해 판자문을 만들어 놓았다. 서쪽 옆에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두었는데 음식을 넣어 주기 위한 것이다. 둘러쳐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올 때에 금오랑이 관대를 갖추고 교상에 기대어 문밖에 앉아서 나장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 넣게 하고 그 문을 닫아 봉합하였다. 울타리 서쪽에 작은 사립문을 만들었는데, 대개 그 전례가 그러하다.¹³⁾

위리안치는 가극(加棘)안치라고 하며 중죄인에게 내려졌다.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圍籬), 가시덤불을 쌓고(加棘) 그 안에 유배인을 유폐시킴으로써 중연금 상태를 내외에 상징하는 조치였다. 이는 가시울타리로 쓰였던 탕자나무의 서식지가 전라도 연안과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로 취해졌던 형벌이다.

그러나 위리안치라고는 하지만 대개는 도망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배인의 행동범위를 실제 울타리 안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수령에게 있었던 까닭에 수령의 성격이나 재량에 따라 유배형은 대개 형식에 그치는 수가 많았다. 추사의 경우도 위리안치였지만 실제로 제주목은 물론 한라산까지도 기행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위리형은 그 상징성이 무섭다.

2. 자기교육활동

위리안치라고는 하지만 유배인의 행동범위를 실제 울타리 안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제주도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특히 그들을 대상으로 교학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정온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온이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교학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정온이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교육활동으로서 독서에 주력했다는 사실만은

12) 『大典會通』卷五, 刑典, 恤囚, “流囚家屬許從”

13) 鄭蘊, 『桐溪集』卷2, 「大靜縣東門內圍籬記 萬曆甲寅秋八月日」, “北東南三面 皆接簷 全不見天 由西方見之者若坐井者然 籬之內 東西常有餘尺 南北居三之二 向南作板門 西傍置小竅 所以通飲食也 入圍籬時 金吾郎具冠帶 據轎床坐門外 令羅將挈我入置 閉其門封之”

분명하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교육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학문의 추구, 지식의 습득, 기술의 연마, 인격의 향상을 꾀하는 자기교육의 방법으로서 이는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막론하고 교육이 성립하는 기본이 된다. 유배지에서 가장 가능한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중기 학자로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던 허목이 쓴 정온의 행장에는 “항상 글을 읽었다(常讀書)”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 송상인, 이익도 모두 죄를 얻어 이곳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 송상인은 바둑을 두고 이익은 거문고를 배우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으나 공은 항상 글을 읽었다.¹⁴⁾

정온은 제주도에 유배가 되자 작심을 하였는지 많은 서적을 가지고 왔고 이를 벗 삼아 학문 연찬과 독서로 일과를 삼을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중국 은대로부터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곤란과 우환을 당하여도 정도를 잃지 않았던 59명의 행적을 모아 『덕변록(德辨錄)』이라 하여 자신을 반성하는 교재로 삼았고,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자경잠(自警箴)」을 지어 연중 자경서로 하였다.¹⁵⁾

「자경잠(自警箴)」의 서문을 보면 정온이 유배지에서 자아의 주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노계 박인로(朴仁老)는 첫째,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명덕(明德)을 닦고 둘째, 정성으로 팔덕(八德)을 닦고 셋째, 이로써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자경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유교적인 수양이 곧 정온이 쓴 「자경잠」의 핵심이었다.

아, 나는 금년에 어느새 나이가 쉰 살이 되었다. 지난 49년 간의 마음가짐과 행실을 뒤돌아보니,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 많다. 어버이를 섬김에 불만한 행실이 없었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였으니, 부자(夫子)가 말한 “4, 50이 되어도 선하다는 소문이 없다.”는 것이 나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니겠는가. 이에 두려워하면서 반성하여 하늘이 부여한 밝은 명(命)을 저버리지 않기를 생각하여 잠(箴)을 지어서 스스로를 경계하노라.¹⁶⁾

게다가 『덕변록』을 편집하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고단하고 우울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온이 대단히 분투했음을 알 수 있다.

14) 鄭蘊, 『桐溪集』附錄 卷1, 許穆, 「桐溪先生行狀」, “時宋象仁, 李瀼 皆得罪 遷謫至此 宋象仁彈棋 李瀼學琴 以暢其壹鬱 而公常讀書”

15) 鄭蘊, 『桐溪集』附錄 卷1, 許穆, 「桐溪先生行狀」, “於是訂經史 摭前言 上自殷之末世 下至南宋 其間聖人賢人之困厄憂患 心危慮深 不失其正者凡五十有九人 輯爲德辨錄以自省 又作元朝自警箴”

16) 鄭蘊, 『桐溪集』卷2, 「元朝自警箴并序」, “噫 余今年忽五十矣 追思四十九年前處心行己之道 多有可愧於心者 事親 無可觀之行 立朝 有自作之孽 夫子所謂四五十而無聞焉者 非余之謂乎 於是惕然反諸心 思所以不負乎天之明命者 而爲之箴以自警焉”

내가 이 《덕변록》을 집성(集成)한 것 역시 환난에 대처하고 천한 자리에 거처하는 도리를 배워서 도(道)에 곤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궁벽한 고을에 서적(書籍)이 많지 않아서 널리 채집할 수 없고, 또 서로 강론하여 바로잡아서 산삭(刪削)을 가할 현명한 사우(師友)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감히 외인(外人)과 함께 볼 수 있겠는가. 단지 사적으로 보관해 두고서 스스로 반성하고자 할 뿐이다.¹⁷⁾

이렇게 「자경잠」이나 『덕변록』은 정온의 주력했던 자기교육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쓴 「우연히 읊다(偶吟)」라는 한시에도 자기교육활동으로서 그의 독서활동에 대한 정황이 비교적 잘 그려져 있다.

늘그막에 지나간 행역으로
기구하게 남북으로 떠도는 사람 되었네
벼슬을 구하는 것은 곧은 성품을 해치고
우려는 천성을 상하느니
농한기 삼동 공부를 못하여
끝내 진퇴의 구분에 어두웠네
위리 속에는 다른 일이 없으니
수시로 옛 책이나 보노라¹⁸⁾

이렇게 정온이 “수시로 옛 책을 보면서(時覘古編陳)” 독서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제주도 태수의 배려 때문이었다. 태수는 정온을 위하여 서실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지방유생들을 교학하고 먼저 유배와 있던 송상인(宋象仁), 이익(李瀾) 등과도 시문 교류를 하였다.

태수가 나를 위하여 서실을 두 칸 만들어 주었는데,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에서 성첩까지의 거리는 겨우 4, 5척이며, 서쪽에는 굴림이 있는데 울타리가 높아서 겨우 나무 끝만 보인다.¹⁹⁾

후일 정온이 제주도를 떠난 뒤에는 그 서실 자리에 제주도 선비들이 송죽사(松竹祠)를

17) 鄭蘊, 『桐溪集』 卷2, 「德辨錄序」, “余之集成此錄者 其亦學處患居賤之道 而求以不困乎道而已 第恨荒僻之鄉 書籍尠少 未能博採廣取 又無明師友相與講正而筆削之 豈敢與外人觀 只欲私藏而自省云爾”

18) 鄭蘊, 『桐溪集』 卷2, 「衰境長行役 崎嶇南北人 干求傷直性 憂慮損天真 已失三冬業 終迷二柄輪 籬中無外事 時覘古編陳」

19) 鄭蘊, 『桐溪集』 卷2, 「大靜縣東門內圍籬記 萬曆甲寅秋八月日」, “太守爲吾作書室二間 背東面西 東距城堞僅四五尺 西有橋林 籬高僅見樹梢”

세워 장수(藏修)하는 곳으로 삼았고 또한 현종7년(1841) 목사로 제수되었던 이원조는 그 자리에 동계 정온의 사당을 세워 그 곁에 송죽서당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글공부도 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주도에서 정온이 주력했던 자기교육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서원배향의 의미

그러나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정온의 자기교육활동의 결과는 그가 조선조 제주교육의 대명사인 제주오현(濟州五賢)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제주오현이란 제주도의 굴림서원(橋林書院)에 배향되었던 김정(金淨),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 송인수(宋麟壽) 그리고 송시열(宋時烈) 등 5명의 유현을 말한다.

제주오현 가운데 한 사람이 정온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제주교육사에 있어서 정온의 위치와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굴림서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제주도에서 오현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제주도에서 정온이 주력했던 자기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 굴림서원과 오현배향

제주오현이 배향되었던 굴림서원은 선조 11년(1578) 조인후 관관이 중종 16년 기묘사화로 유배와 사사(賜死)된 김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묘(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²⁰⁾ 성혼의 문인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임제가 절도사인 부친을 뵈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기(記)를 썼고²¹⁾ 효종 10년(1659) 이회 목사가 제주유림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藏修堂)을 건립하자²²⁾ 현종 6년(1665) 최진남 관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액(懸額)하였다.²³⁾

현종 10년(1669)에는 김상헌과 정온을 배향하여 숙종 1년(1675) 삼신(三臣)의 서원으로 사액(賜額)을 요청해 보았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되었고²⁴⁾ 숙종 8년(1682)에 가서야 송인수를 배향하면서 사신(四臣)서원으로 사액되어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

20)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十一年 春 判官趙仁後 建沖庵廟于嘉樂川東”

21) 林悌, 『南溟小乘』,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 李元鎮, 『耽羅志』, 詞廟條.

22) 金錫翼, 『耽羅紀年』, “牧使李建藏修堂 是因金晉鎔議 遂建學堂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及興學事”

23) 金錫翼, 『耽羅紀年』,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 移建沖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橋林書院”

24) 《肅宗實錄》, 肅宗 元年 9月 庚戌, “三臣書院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 言賜額事 重 有難輕議”

며²⁵⁾ 숙종 21년(1695)에는 송시열을 배향함으로써 오현 배향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²⁶⁾

서원의 발생은 선조의 교학이념이 안고 있던 모순을 어떤 형태로나마 극복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관학의 쇠퇴라는 교학체계의 붕괴와 사화(士禍)로 표상되는 정치도의의 문란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이 내재하고 있었다.

사화 이후 서원은 교학진흥의 거부할 수 없는 필요책으로 부각되는데 특히 명종은 홍학을 위해 허물어져 가는 관학에 기대하기보다 서원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서원은 그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⁷⁾ 그러나 결정적으로 서원제도가 정착되고 성립된 것은 퇴계 이황의 서원보급운동에 의해서이며, 그는 서원을 사람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위한 교육기구로 성격지었다.²⁸⁾

이러한 서원의 전개과정은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세기 중엽부터를 사문(斯文)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강학우위의 제1기라고 한다면, 서원의 본래 목적을 상실, 강학기구 대신에 사현위주(祀賢爲主)로 변모하였던 17~18세기를 제2기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를 서원정비시대, 즉 제3기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 정착된 서원제도는 고등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장수우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의 서원은 양육인재의 교육적 기능 대신에 부차적이었던 제향을 강조하게 된다. 서원향사인은 반드시 사문의 유공인이 아니라도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어 서원의 남설(濫設), 첩설(疊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정략적인 당쟁에 있었고, 자당의 학문적인 정통성이 곧 서원수에 의해 과시되는 까닭에 서원향사는 바로 이념적 주도권의 척도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역기능이 계속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고 드디어 대원군 집권시에 서원철폐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에 굴림서원이 설립된 것은 제2기에 해당되는 향사우위 시대였다.

서원이란 서재학교(書齋學校)와 선현선사(先賢先師)를 제사 지내는 사묘(祠廟)를 합친 것으로서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서당이나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과 위패를 모시고 제

25) 金錫翼, 『耽羅紀年』, “肅宗 八年…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沖庵廟 汲宣 額曰橘林書院”

26) 金錫翼, 『耽羅紀年』, “二十一年 以文正公宋時烈 從享于橘林書院 宋時烈 字英甫 號尤菴 恩津人 己巳春淪 謫本州 踰月被逮 受後命于中道 官左議政從祀文廟”

27) 예컨대 白雲洞書院에 대한 賜額 조치가 그것이다. 《明宗實錄》卷9, 明宗 5年 2月 丙午條

28) 李滉, 『退溪全書』卷42, 記, 「迎鳳書院記」, “雖然上國之於書院 必擇儒先之 知道者爲之山長主盟 以倡率 故道術不分 而學者知所趨矣 若吾東方 則院教新 興 而此典未講 或入阮之士爲學之方 不幸而不出於古人爲己之學 而惟科目 譁競之事 是尙是務 則雖日從事於書林藝苑之中 而求 聖賢之門牆 比如適 越而北轅 反之於心而無得 撥之於事而太乖 豈不可畏之甚耶 嗟乎 擇里擇術 孔孟之深戒 爲今之士 科舉之習 雖不能全廢 其祀聖賢爲己之學 正心修身之 道 則內外本末輕重 緩急之序 判然如 壞之不 矣 學者誠能審擇於此 而勇 決其取舍”

사를 지내는 사우(祠宇), 향현사(鄉賢祠)와는 다르다. 특히 선현의 봉사(奉祀)는 곧 그 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문묘종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다.²⁹⁾

따라서 유현배향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결속은 교육에 의해 더욱 발전, 계승되었으며 특히 지방 사풍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향사에도 사액, 비(非)사액의 구분이 있어 향사의 경중이 달랐는데 사전(祠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사액서원 향사였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비(非)사액서원 향사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원향사를 둘러싸고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현종 9년(1668) 이인 목사가 굴림서원에 그의 조부인 이약동을 배향케 하였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인 목사가 사정(私情)에 의하여 망작(妄作)한 것이라 하여 숙종 1년(1675) 이선 어사의 소(訴)에 의해 위판이 철회³⁰⁾되기는 했지만 이렇듯 향사인물의 선정에 따른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송시열이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윤지선이 서원첩설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금령이 엄격하던³¹⁾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굴림서원의 경우는 쉽게 배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유현배향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시대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고자 했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뒤의 학자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

서원향사에 있어서 사액과 비(非)사액은 그 경중이 달랐다. 제주도의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이었다. 사액이 되면 대부분 공인서원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받으며 서원의 재정을 국가에서 보충받게 되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29) 書院享祀의 내용을 典故大方 書院享祀條에 의거하여 書院의 數와 享祀人物의 數를 통계 내어 보면 書院의 數는 賜額書院이 205곳이고 非賜額書院이 196곳으로 모두 401곳이다. 여기서 享祀되어 있는 人物의 數는 賜額書院이 290인, 非賜額書院이 397인으로 모두 687명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享祀되어 있는 儒賢은 退溪가 31곳, 宋時烈이 28곳 그리고 栗谷이 20곳의 순으로 되어 있다.

30) 《肅宗實錄》, 肅宗 元年 9月 庚戌, “牧使李인又以其祖父李約東不議於士林置之三賢之上有辱三賢莫此爲甚不當仍置…李置其祖於三臣之上不無循私妄作之迹位版使之撤去上允之”

31) 《肅宗實錄》 肅宗 21年 6月 壬辰條,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柳尙運 又請 如有疊設新建之祠 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 定式施行 上皆許之”

더욱이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은 숙종 초의 분위기는 사액을 통한 서원보호책에 대하여 중신들 간에 강력한 반발이 일기 시작하던 때³²⁾였으니 만큼 더욱더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정치적 여건에 따른 희유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다.³³⁾

나라에서 사액을 내리고자 할 때는 홍문관의 대제학 또는 부제학과 같은 명망있는 학자관원이 먼저 그 서원 원호(院號)에 알맞는 후보액호(候補額號) 셋을 선정하여 국왕에게 올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비삼망(備三望)이라고 부르며 국왕은 이 삼망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명명한다. 이를 낙점이라 한다. 이렇게 액호가 결정되면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위촉하여 쓰게 하고 현판이 내려 갈 때는 예조좌랑을 보내어 치제토록 한다.

이때에 그 지방의 수령 방백은 모두 이를 맞이하여야 하며 더욱이 어필(御筆)로써 사액을 내리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름난 각수로 하여금 그 액을 각하도록 하고 그 원본이 서원으로 봉안될 때는 의장대와 악대를 동원하여 그 위의(威儀)를 돋우게 하였다. 굴림서원은 숙종 8년에 정식으로 선액(宣額)되고 예조좌랑 안건지가 내려와 치제를 하였다.³⁴⁾

사액 즉 왕의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서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세, 면역의 특전을 향유한다는 실질적인 이득이 따랐다. 물론 이것이 정치경제적인 역기능을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원정비의 발미가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제주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나. 제주오현의 의미

굴림서원의 제주오현은 배향을 통해 제주인들의 교육적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적 활동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교육지도성의 모범이자 제주교육사의 구체적 매개체임에 틀림이 없다.

32) 《肅宗實錄》, 肅宗 2年 10月 甲戌條에 “尙州儒生李在憲等上疏曰 嶺南卽東方之濂洛也 麗朝文忠公鄭夢周本朝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元公李彥迪文純公李滉等五賢 先後輩出 萬曆甲午文肅公鄭經世 謀建學宮 合祀五賢 所謂道南書院是爾…恩賜未實 乞允所望 使儒賢俎豆之地 衣被榮光…(禮曹)判書李元翼以爲 此八賢各建書院 皆賜額號 而先朝有書院疊設之禁 今不可疊設賜額號…領議政許積筵曰 禮曹防啓措語過矣 此院與他異 園隱及我朝四賢 皆文廟從祀人也 且柳成龍鄭經世 相議建設 如此者先朝亦皆賜額矣 上特命賜額”이라 하였다.

33) 《肅宗實錄》 38卷, 肅宗 8年 6月 己亥,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濟州儒生 以文簡公金淨參判鄭蘊 嘗謫居島中 文忠公宋麟壽爲本州牧使 文正公金尙憲以巡撫御史入來 島中瓶建四臣書院 上疏請額該曹以疊設前例防啓矣錫胄奏四臣俱有文學名節 而海外之人 能知尊慕此爲可嘉不可與陸地近眼 紛紜疊設者比也上特許賜額”

34) 金錫翼, 『耽羅紀年』, “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沖庵廟 卽宣額曰橘林書院乃遣禮郎安健之來致祭”

한국교육사의 서술 과정에 있어서 “오현(五賢)”이란 단지 다섯 명의 사상가를 거론하는 산술적 의미만을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내용으로서 한국교육사의 의미와 깊은 관련을 맺는 중요한 교육학적 개념이다. 일찍이 한국 성리학의 도통(道統) 계보 형성에 있어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이른바 오현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정몽주 → 우탁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 →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 연원의 확정 작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상의 정당한 계보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이가 창도한 율곡학과에서는 따로 그들의 오현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이는 특정 사상가의 주관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고 그의 주관과 어우러져 성립된 당대의 지성 풍토, 규범 체계, 생활 관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조망해 보려는 노력으로서 넓게는 영남학과와 기호학과 간의 사상적 갈등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어느 한 당색에 치우치게 되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고 또 선조 10년 이후의 학자는 어느 학자이고 간에 거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의 대표적인 예가 오현에 대하여 일부 노론과 소론들이 이황을 제쳐놓고 직접 조광조에다 연원을 대었던 것인데 즉 노론은 조광조 연원에다 율곡을 대고 또 소론은 조광조 연원으로 성혼을 대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현의 갈등은 단순히 당리당략 차원의 자과 확보라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도통이라는 최고의 가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상적 정초 작업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오현의 선배는 그 당시 국론으로 정한 것이지만 한 두 사람의 제창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현의 갈등은 도통의 확립을 둘러싼 술한 학문적인 논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양명학의 배척, 이설에 대한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시비, 주리·주기의 논쟁, 호락논쟁(湖洛論爭)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문묘배향의 시비 논쟁이기도 하였는데 각 학파에 따라서 문묘중사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율곡과 성혼이 문묘에 배향되었다가(숙종7년) 출향되고(숙종15년) 다시 배향되는(숙종20년)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논쟁들이 곧 오현의 계보 설정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때 ‘오현’은 한국 교육사상사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게 기능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의미 연관을 갖고 있는 사상적 수렴·확산의 구체적 매개체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학문적 목표인 도통 확립의 기본 골격이 바로 ‘오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공자가 그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당한 질서이자 계보로서 「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을 들었을 때 공자를 포함한 이른바 「8성인」의 의미 또한 ‘오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상적 수렴·확산의 구체적 매개체와 다를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오현’의 계보 설정이란 곧 문묘 종사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묘종사의 심각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이른바 굴림서원에 배향된 ‘제주 오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제주 오현’은 그 기원이 도통의 확립을 둘러싼 치열한 이념 논쟁에서 결과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제주 지방 자체의 자의적 수준에 의해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목민관이나 유배 등의 이유로 입도하여 제주와 관계를 맺은 유현들 가운데서 오현이 선정되었다는 지적인데 이러한 지적은 조선조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한 상호 설명력을 구성할 뿐 아니라 조선조 제주도의 교학질서를 해명하는 방향을 암시한다.

제주오현이 배향된 굴림서원은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까지 근 212년간을 존속되었는데 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통을 추증하고 한편으로는 철학과 역사의 큰 스승(經史大師)을 흠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제주오현의 가치는 큰 것이었다. 제주오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면암 최익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작은 제주섬은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오현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 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³⁵⁾

다. 정은 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오현의 굴림서원 배향의 배경에 대해 장인식 목사가 기록한 긴 글 가운데 정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계 정선생의 휘는 온(蘊)이요, 자는 휘원(輝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병자(인조 14년, 1636)의 강화(講和)의 날을 당하여 칼날로 배를 베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소생하였다. 청음 선생과 더불어 한 몸의 화복을 돌아보지 않고 홀로 만고의 인륜의 길을 바로 세우려 하였다. 일찍이 혼조(昏朝)의 동기(同氣)의 변(變)에 선생이 다투어 말하기를, ‘지금 능히 한 아우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선왕의 사당에 들어가겠는가.’ 하였다.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제주에 귀양보내었다. 유허에 송죽사(松竹祠)를 세워 대정현 선비들이 장수하는 곳으로 삼았다.³⁶⁾

35) 崔益鉉, 『勉菴先生文集』卷24,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 “爾耽羅 久未破荒 龍言皮眼 陋矣俗尙 噫我五賢 于坎于職 觀感興作 民到今式 苟究其由意實自天”

36) 張寅植, 『橘林書院廟庭碑記』, “桐溪鄭先生 諱蘊字輝遠諡文簡 當丙子媾和之日 以刀剗腹幾殊僅

10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 이후 정온의 학문적 경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정온은 분명히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김상헌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단행되자 이에 분개하여 할복을 결행하는 등 그가 보여준 애군우국의 충정 때문에 김상헌과 함께 제주도 굴림서원에 배향된다. 특히 정온의 서원 배향은 단순한 배향 유형이라는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배향을 통해 남명학과(南冥學派)의 유서(遺緒)라는 차원에서 “경”과 “의”에 투철하고,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정온의 교육사상을 제주도에 남길 수 있었던 제주교육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조반정의 성공을 계기로 광해군대 정치판을 주도했던 대북파를 비롯한 북인들은 대부분 몰락한다. 특히 대북파 가운데서도 정온의 스승이었던 정인홍이 처형되었던 것은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위상이 저하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제 인조반정 이후 일각에서는 정인홍의 처형과 함께 남명학파의 학맥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인 이귀는 인조반정 이후에도 퇴계의 학맥이 전승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명의 학맥은 정인홍에서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³⁷⁾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반정 이후에도 남명학파, 나아가 남명학파가 지닌 학문적 효용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경(敬)과 의(義)를 중시하는 남명의 사상은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재야의 문인들과 인조대 조정에 나아갔던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면면히 계승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하던 조정에 출사했던 남명의 후학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동계 정온이다. 그는 일찍이 정인홍 문하에서 수학함으로써 남명의 학통에 연결되고, 정치적으로는 북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광해군대 대북파가 주도한 영창대군 살해와 ‘폐모논의’를 비판하다가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됨으로써 광해군대 내내 정치적으로 국외자의 입장에 있었다.

인조반정 이후 정온은 다시 등용된다. 그는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대 조정에서 ‘정인홍의 직계 제자’이자 ‘북인 출신’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사간, 이조참판 등의 고위 관직에 제수되었다.³⁸⁾ 그리고 이후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은퇴할 때까지 강직한 연관으로서, 후금과의 화의에 반대했던 강렬한 척화파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로써 정온은 인조반정으로 무너졌던 북인 정파, 나아가 남명학파의 유서를 후대에 계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甦 與淸陰先生 不顧一身禍/福 獨扶萬古綱常 而嘗於昏朝同氣之變 先生爭之曰 今不能容一弟焉 則他日何面目 入先王廟乎 光海/大怒 遂竄于大靜 遺墟立松竹祠 爲縣士藏修之所”

37) 全湜, 『沙西集』 卷3, 「經筵講義」, “李貴曰 李湜之後學 多有雍容之習 至今傳來 曹植之後學 則至鄭仁弘而止也”

38) 인조반정 이후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한 남명의 문하이자 ‘북인의 후예’로는 정온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다. 文緯, 李大期, 姜翼文, 朴文榮, 林眞愼, 姜大遂 등이 그들로서 그 가운데 가장 고위직까지 올랐던 사람은 단연 정온이었다.

된다.³⁹⁾ 현종 10년(1669)에 제주도 굴림서원에 정온이 배향됨으로써 제주도에도 남명학파의 유서라는 차원에서 정온의 교육사상이 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온의 제주교육에 미친 가장 결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교학활동의 영향이자 교육적 의미였던 것이다.

이러한 남명학파의 유서 계승은 정온 한 사람만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허목이 쓴 행장에서도 “당시 송상인, 이익도 모두 죄를 얻어 이곳으로 귀양 오게 되었다.⁴⁰⁾”고 언급되어 있듯이 당시 간옹(艮翁) 이익(李瀾)(1579~1624) 역시 광해군 10년(1618)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5년여에 걸쳐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원래 남명 조식의 수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逋)의 종유자(從遊者)⁴¹⁾로서 남명 → 정구로 계승되는 남명학파의 전통에 닿아 있는 학자였다. 정온은 32세 때 이미 “강좌(江左)로 가서 월천(月川) 조목(趙穆)을 뵈었고 강우(江右)로 가서 한강 정구를 뵈었다.”⁴²⁾고 할 정도로 정구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구의 종유자인 이익과 제주도에서의 만남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온은 대정현, 이익은 제주목에서 각자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일상적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명학파의 전파라는 점에서 제주도에서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익은 김진용(金晉鎔)과 고흥진(高弘進), 문영후(文榮後) 같은 걸출한 제주도 지식인들을 문하에 두게 된다. 이들은 제주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로서 이들이야말로 이익을 통해 배출된 남명학파의 제주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해배(1623)되자 제주에 경주이씨의 후손들을 두고 떠났고 그 후손들은 남명학파의 유산인 가학적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대대로 제주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굴림서원이 창건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익의 제주후손들이 적극 관여함으로써 남명학파의 유서 계승은 교육사적으로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다.

39)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명학파의 2세대’라 할 수 있는 정온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다만 李相弼 교수의 논문에서 ‘義의 실천자’로서 정온을 평가한 부분이(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157~161쪽) 거의 유일한 것이다.

40) 鄭蘊, 『桐溪集』 附錄 卷1, 許穆, “時宋象仁, 李瀾 皆得罪 遷謫至此”

41) 朴世采, 『東儒師友錄』, 補遺 下, “寒岡先生從遊一李良翁謂瀾字洞如號良慶州人萬曆乙卯生壬子中大小科光海乙卯被囚戊午濟州安置”

42) 鄭蘊, 『桐溪集』 「年譜」, “有之江左見月川 之江右見寒岡”

III. 결 론

제주도에서 동계 정온이 주력했던 자기교육활동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후일 굴림서원 배향으로 나타난다. 물론 정온은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에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교육에 주력하면서 제주도와와의 인연을 쌓은 탓도 크지만 무엇보다 해배 이후 특히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단행되자 이에 분개하여 할복을 결행하는 등 그가 보여준 애군우국의 충정을 높이 기리기 위해 이루어진 제주도 굴림서원 배향이야말로 정온이 주력했던 제주도에서 자기교육활동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임이 틀림없다.

인조반정 이후 대북파가 몰락하고 대북파의 실세였던 정인홍이 처형됨으로써 남명학파의 학맥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남명의 후학으로서 서인이 주도하던 조정에 출사하여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동계 정온이다. 그는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대 조정에서 ‘정인홍의 직계 제자’이자 ‘북인 출신’으로서 실천적인 척화파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를 계기로 제주도 굴림서원에 배향이 되면서 경의지학이라는 남명학파의 유서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교육사상을 제주도에 계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원 배향은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후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감발흥기(感發興起)케 하는 교육적 동기를 갖고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제주도 굴림서원 배향을 통해 정온은 200여 년간 제주도 교육의 큰 스승(經史大師)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제주도에서도 남명학파의 유서라는 차원에서 “경”과 “의”에 투철하고,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교육사상을 계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온이 제주도 서원배향에 남긴 가장 큰 교육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朝鮮王朝實錄

大典會通

典故大方

典律通補

金錫翼. 『耽羅紀年』

朴世采. 『東儒師友錄』

李元鎮. 『耽羅志』

李滉. 『退溪全書』

林悌. 『南溟小乘』

丁若鏞. 『牧民心書』

鄭蘊. 『桐溪集』

崔益鉉. 『勉菴集』

張寅植. 『橘林書院廟庭碑記』

남명학연구원(2008), 남명학과 연구의 신지평 -남명학연구원 총서 2-, 예문서원.

박병련(2004), 남명학과와 영남우도의 사람 -한국철학총서 22-, 예문서원.

서일교(1968).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한국법령편찬회.

矢木毅(1996). “朝鮮初期の徒流刑について”, 前近代中國の刑罰,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梁鎮健(2002). 濟州教育行政史, 제주문화.

양진건(2008),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학 총서 9-, 제주대학교출판부.

李相弼(1998).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원고접수: 2010년 7월 7일 / 수정완료: 2010년 8월 7일 / 게재승인: 2010년 8월 18일

□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관심 분야는 교육사, 문화교육, 스토리텔링

yjgeon88@jejunu.ac.kr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Honoring Donggye Jungon in
History of Jeju Education**

Yang, Jin-Geon

Donggye(桐溪) Jungon(鄭蘊) is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late Chosun Dynasty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an education in Jeju. While exiled to Jeju, he engaged in various teaching activities including the making of various confucian reading and study groups.

In fact, it is his enshrinement to *Gyulim Suhwon*(橘林書院) that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Jeju's confucian education. During the Manchu war of 1636, Jungon opposed to the reconciliation with Manchurians. He at last attempted to kill himself as Chosun made a peace agreement with Manchurians.

Jungon was enshrined in *Gyulim Suhwon*, one of the major confucian memorial and lecture hall in Jeju, for this patriotic sentiment. Honoring a distinguished person at *Suhwon* is an important educational event in Confucianism. It is because the event inspires students to learn after the deeds of a great person.

By enshrined in *Gyulim Suhwon*, Jungon had presented a model for confucian education in Jeju for more than 200 years. As a result, Jeju people could inherit the history of *Namyung* Confucian School((南冥學派).

Key Words : Donggye-Jungon, Gyulim Suhwon(橘林書院), enshrinement, Namyung Confucian School

КСІ